



저는 윤경란 수녀입니다. 언니가 두 명 있고 남동생이 두 명 있고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1956년에 강진에서 태어나 성요셉 여자 중학교 1학년 때 양노린 수녀님께 영어를 배웠고, 앨리스 수녀님께 포크댄스를 배워 중간놀이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학창시절에



경험한 인성교육, 문화교육, 생활교육 등 많은 사랑을 받고 행복했습니다.

성요셉여고 2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저도 수녀가 되고 싶다고 기도드렸는데 후에 3년간 교사로 후배들을 가르치다가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만난 수녀님들을 보면서 1983년에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1991년에 종신서원을 하기 전과 후에 7년간 본당 사목의 협조자로서 살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계층사람들을 만나 각 사람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년간 피정 강의를 할 때 신자들과 나누는 경험도 유익한 체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꾼 교사로 성요셉 여학교와 특수학교인 충주 성모학교, 광주 은혜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생활 시설에서 원장으로 6년을 생활할 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2019년에 은혜학교에서 퇴임한 후에 강진한옥 생태공동체 에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생태교육, 영성교육, 생활교육을 통해 소중한 자신과 소중한 이웃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마을학교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3년째 기반을 다지고 발전 시켜온 청향 김경미 수녀님과 함께 일하면서 블루베리와 다양한 채소, 화초를 직접 관찰하고 가꾸며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사랑하올 예수, 위로자인 성령) 우리생활 바쳐 경배하리”(성가 삼위께 경배를) 부르며 지금도 물가에 데려다 놓은 아이처럼 철없는 저에게 하느님은 수녀님들과 은인들의 보내주셔서 저를 지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Hello! I'm Sister Yoon, Kyoung Ran. I have two older sisters and two younger brothers. I was born in 1956, and my first encounter with Charity Sisters goes back to my middle school year in St. Joseph Girls' School in Gangjin. I learned English from Sr. Mary Noreen Lacey and Folk Dance from Sr. Alice Ruane. Sisters provided various

examples in the fields of personality, culture, courtesy, and education. We were loved by teachers and sisters at that time.

When I was in second grade at the St. Joseph Girls' High School, I was baptized and prayed to become a Catholic sister. Later as a teacher, I came to the school, met the Sisters, and entered the Congregation in 1983.

For seven years and especially in 1991, the year right before I professed my perpetual vows, I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many things in life through encountering people from every walk of life while working in the parish. Working at the retreat house for two years doing lectures in directing retreats was another meaningful experience. My childhood dream to be a teacher came true in my ministry at St. Joseph Girls' School, St. Mary School for the blind, and Eunhae school for students with physical impairments. While I was serving as



director of the St. Mary School living facility for students for six years, I discovered new possibilities that we can do for students in the future.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ce again.



After retiring from Eunhae School in 2019, I lived in Gangjin ecological traditional community for four years. Here we, as activists, are educa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ecology, spirituality, and a healthy lifestyle so that they can live happily along with neighbors and themselves. With Sr. Kim, Kyeong Mi (I), who placed the foundation of the ecological community over thirteen years, I grow blueberries, flowers, and vegetables and use them as good educational materials.

“To our Father (Loving Jesus, Our comfort, Holy Spirit!) We praise you, offering our lives.” Singing this song, like an innocent child who is romping along the waterside, God sends sisters and benefactors to me to support me, and I appreciate Him for His favor.

